

나뉘서 더 좋은 · 고쳐서 더 소중한



물물교환·수선파티 '수선장'의 모든 것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수선장'을 열어 보세요

Minimize Impact X 한 틀

나눠서 더 좋은 · 고쳐서 더 소중한

수 선 장



물물교환·수선파티 '수선장'의 모든 것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수선장'을 열어 보세요

Minimize Impact X 한 톨

목차

1	'수선장'이란?	02
2	왜 '수선장' 열어야 할까요?	04
3	'수선장' 계획, 실행하기	06
4	'수선장' 규칙	08
5	케이스 스터디	10



'수선장'이란?

수선장은 서로의 쓸모를 교환하고, 헤진 물건을 수선해보는 물물교환·수선파티입니다. 내 옷장 속에 꼭꼭 숨은 옷을 필요한 누군가와 바꿔 입고, 구멍 나고 헤진 옷은 바늘을 들어 꺾매 봅니다. 환경에 대한 비슷한 고민,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사람이 모여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을 교환하고, 고쳐 보면서 사회적 네트워크도 발견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낡고 헤진 것은 손바느질 도구와 튜토리얼을 활용해 투박하더라도 스스로 고쳐봅니다. 수선의 시작은 바늘을 드는 것부터! 이곳에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고쳐 입는 감각을 회복해보세요.



왜 '수선장'을 열어야 할까요?



왜 '수선장'을 열어야 할까요?

매해 생산되는 새 옷 1,500억벌
 최근 1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장 속 옷 비율 30%
 우리나라 하루 평균 의류 폐기물 259톤

낡은 옷 1kg 모을 때 줄일 수 있는 것

- 3.6kg의 이산화탄소
- 0.3kg의 비료
- 6,000L의 물
- 0.2kg의 농약

'수선장'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장롱 안의 아이템들을 탈바꿈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물물교환·수선포티입니다. 사이즈가 작아진 것, 웬지 모르케 더는 입지 않게 되는 옷 등을 가져와 타인의 쓸모와 교환합니다. 동네 중고매장에서 받아주지 않는 구멍 났거나 해진 옷을 가져와 자기만의 방식으로 수선회보는 창작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낡은 것에 나만의 개성을 더하고, 제품의 수명을 늘려 오래오래 사용해 보세요.
 나눠서 더 좋은, 고쳐서 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탈성장 사회를 위한 몇가지 대안

- 현대적인 자가 생산 방식은 성취감을 주고 이를 통해 자기 구현의 재미를 맛볼 수 있다. 특히 스스로 생산하거나 수리 수선하거나, 예술적 취미를 가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직접 만든 결과물을 오감을 통해 인지할 때 오는 만족감은 분업을 통해 만들어진 산업 제품을 소유하거나 이용할 때 오는 피상적인 만족감에 비할 수 없다
- 적게 구매하고 그 대신 이웃들과 교환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혹은 생산한다는 사실은 경제적인 행위가 다시 사회적 네트워크와 맞물려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감축과 절제의 미덕을 진정한 사회의 법칙으로 다시금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사회 전체에 해당하기도 하며 각자 개인의 삶의 방식에도 해당한다. 탈성장 경제론은 뭔가를 추가적으로 더 하자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포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데에 익숙한 나머지 가장 간단한 원리를 간과하고 있다. 감축과 자기 절제라는 행위는 자본도 필요 없고 새로운 발명품도 필요치 않으며 정치적인 혁신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매력이 있다. 아무 조건도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

- 성장으로부터의 해방(저. 니코 페히) 중



'수선장' 계획, 실행하기

누구와?

- 누구와 물물교환·수선패티를 하고 싶은지 먼저 떠올려보세요. 친구, 가족, 이웃, 학교/회사 동료 또는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 등 다양한 대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개최 규모는 주최자가 결정합니다. 5명 미만이 될 수도 또는 100명 이상의 큰 규모가 될 수도 있겠지요?
- 특정 컨셉의 '수선장'을 원하시나요? 주최자에 따라 초대하고 싶은 특정 대상 또는 아이টে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성, 남성, 부모(유아 및 어린이 옷 및 용품, 교복 등의 교환·수선을 원하실 경우)' 또는 '액세서리만 교환' 등 원하는 컨셉을 잡아 '수선장'을 열어보세요

언제?

- 초대 대상이 정해지면, 해당 대상에게 가장 적합한 요일과 시간대로 일정을 구성해보세요. 만약 전업주부 대상의 '수선장'이라면 주중 낮 시간을, 대학생이 대상이라면 시험 기간을 피해서, 직장인이 대상이라면 주말이나 주중 저녁이 좋겠지요?
- '수선장'이 열리기 전, 참가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옷장을 정리하고 고민해볼 수 있게 충분한 여유시간을 두고 개최 소식을 홍보하면 더 좋아요.(최소 2~3주 전)

어디서?

- 규모가 작은 경우, 집에서 열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동네 커뮤니티 센터나 도서관, 공원, 직장 등 해당 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단, 개최하고자 하는 장소에 사전 사용 허락을 받아야겠지요(대관 비용이 발생한다면,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운영 팁

- 참가자들이 간단하게 따라 할 수 있는 수선 튜토리얼을 준비합니다. 손바느질 관련 책이나 유튜브에서 자료를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수선 전문가를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 규모가 클 경우, 운영에 도움을 줄 스태프 또는 자원봉사자 계획을 세우면 좋습니다

어떻게?

- 먼저 '수선장'을 알릴 수 있도록 포스터 또는 초대장을 만들어 배포합니다. 구글 설문지 등의 폼을 통해 미리 신청서를 받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이메일, 웹사이트 등. 또는, 포스터를 인쇄하여 지역 도서관이나 커뮤니티센터 같은 곳에 부착해도 좋겠지요
- 초대장이나 홍보물에 '수선장'의 대상과 컨셉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 어떤 아이템을 들고 오길 원하는지). 되도록 한 사람이 많은 아이템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독려해주세요. 물물교환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하자 없는 아이템, 수선이 필요한 하자 있는 아이템(예: 구멍, 단추 없음 등)을 구분하여 가져올 것을 명시합니다.
- 행사 전날, 참가자에게 리마인드 문자를 발송하면 좋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물물교환 및 수선 할 아이템 뿐만 아니라, 물품을 담아갈 수 있는 '에코 백', 다과(있을 시)를 먹을 수 있는 '개인 접시, 텀블러, 포크' 등을 가져올 것을 권장합니다
- 행사 당일, 필요한 물품들을 세팅하고 점검합니다. '물물교환' 장소와 '수선' 장소를 구분하도록 합니다
- 참가자들이 도착하면, 그들이 직접 가져온 아이템들을 적절한 장소에 비치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비치가 완료되면, (간단한 다과 및 참여자 소개 등을 한 후(생략 가능)) 본격적인 물물교환·수선을 시작합니다
- '수선장'이 끝나고 남은 아이템은 다시 참가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도 남아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지역 중고매장에 기부합니다

기본 준비 재료 (경우에 따라 적절히 변경, 가감 또는 증량)

- 수선도구
- 전신거울
- 간이탈의실
- 옷걸이
- 옷을 걸거나 올려 놓을 수 있는 도구(줄, 행거 등)
- 의자 및 테이블

'수선장' 규칙

1.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최자에 따라 원하는 운영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파티가 시작되기 전, 모든 사람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2. 참여자가 본 행사 시작 30분~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하여, 자신들이 가져온 아이템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배치가 진행되는 동안, 물물교환이나 예약(점찍기) 및 수선이 시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주최자가 사전에 세팅한 구획에 따라 참여자가 직접 아이템을 배치합니다.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또는 상의, 하의 원피스 등 구획 분류)
4. 모든 사람이 적어도 1개 이상의 하자 없는 아이템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5. 주최자가 아이템을 교환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 '수선장' 접수 때, 자신이 가져온 하자 없는 아이템만큼 코인을 받습니다.
1개 코인당, 1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아이템을 발견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합니다
 - 동일한 아이템을 원하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일 경우, 가위바위보 또는 동전 던지기 등을 통해 해결합니다

참고한 자료

- 지구인 패션쇼 (작은 것이 아름답다 2018년 10월호)
- 성장으로부터의 해방 (나무도시/니코 폐허)
- How to hold a swish/swap shop (Zero Waste Scotland)



케이스 스터디

추가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고도 있는 것을 교환하고 고쳐 쓰는 것. '수선장'은 이러한 탈성장 담론을 우리가 매일 입는 옷으로부터 고민하고 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2019년 5월 26일(일) 은평구 혁신파크에 위치한 비전화카페에서 첫 '수선장'을 개최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화폐 없는 물물교환·수선패티 '수선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 보세요.

#0. 알려주세요

'수선장'으로 참가자분들이 잘 도착할 수 있게 안내합니다. 일회용품 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 포크, 접시, 옷을 다시 담아갈 에코백 등을 가 지고 올 것을 당부드렸어요. 놀랍게도 거의 모든 참가자분들이 약속을 지켜주셨답니다.

- ▶ 일시: 2019. 5. 26(일)
- ▶ 시간: 13:30~18:00
*13:30~14:00에 접수시작 및 아이템 배치가 이뤄지므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접수 시간 내 도착 부탁드립니다.;
- ▶ 장소: 비전화카페(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녹번동우체국 옆 건물)
- ★ 자주 하는 질문★(진행일정, 약도 포함): <http://bit.ly/2DPc95D>
- ▶ 개인 준비물: 교환 및 수선할 아이템, 텀블러, 접시, 포크, 에코백(비닐봉지/ 종이봉투 미제공) *간단한 다과 제공
- ▶ 브런치 구독: brunch.co.kr/@minimize-impact

- *참고
- 1. 환경을 위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 2. 비전화카페에는 전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튜토리얼 열람을 위해 미리 충전된 개인 핸드폰, 보조배터리 지참 권장)



#1. 참가자 맞이

옷을 걸수 있는 빨래줄, 담요, 출석체크 장소, 전신거울, 바느질 도구 등 '수선장'을 여는데 필요한 물품과 재료를 미리 설치합니다

#2. 화폐 없이 나무 코인을 사용해요

참가자분들이 하나, 둘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온 아이템 개수마다 하나의 나무 코인을 교환받아요. 나무 코인 1개는 다른 물건 1개와 교환할 수 있어요.



#3. 아이템은 스스로 배치해요

코인을 받은 후, 미리 설치된 빨랫줄과 돛자리에 가지고 온 아이템들을 스스로 배치합니다.

#4. 잠시 이야기 나눠요

'수선장'을 시작하기 앞서, 티타임을 가졌어요. 준비된 맛있는 다과를 먹으며 담소를 나눕니다. '수선장'은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지, '수선장'을 시작하기 전 어떤 스터디를 거쳤는지 이야기 나누었지요. 그리고 더없이 소중한 참가자분들의 이야기도 빠지지 않고 함께 공유했습니다.



#5. 본격적인 물물교환과 수선을 시작해요

다과 타임 동안 서로 인사를 나눴다면 이제 본격적인 물물교환을 시작합니다. 접수 때 교환받은 나무 코인을 개수만큼 다른 아이템과 교환합니다. 물물교환이지만 심사숙고하여 정말 내게 필요한 물건인지 생각하고 고르는 게 중요해요.





물물교환이 어느 정도 되었으면,
 실내로 돌아와 손바느질 킷을 가지고
 수선을 시작합니다. 저마다 구멍 나거나 찢어진
 옷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지 않다면
 평범한 옷에 수를 놓아 자신만의 개성을
 선보입니다. 바느질하는 손들.
 아름답지 않나요?



수선장

나뉘서 더 좋은 · 고쳐서 더 소중한

이 활동은 숲과 나눔 2019 풀씨 사업의 지원으로 최초 시작되었습니다

CC

'수선장'은 Minimize Impact와 한 톨이 기획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의 취지 확산을 위해 오픈소스
툴킷을 배포합니다. 개최하시는 '수선장' 홍보물에

Initiated by Minimize Impact X 한 톨 을 표기해주세요.

Minimize Impact

최소한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에 관해 탐구합니다

브런치 <https://brunch.co.kr/@minimize-impact>

페이스북/인스타 @minimize_impact

문의 minimizeim@gmail.com